매생이 해장국·냉동매생이탕·즉석 매생이탕…1분에 OK

"겨울별미 매생이 사시사철 드세요"

식품硏, 강진군 용역 받아 매생이 가공식품 5종 개발

매생이의 풍부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매생이 가공식품'이 개발됐다.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책임연구원 김영명박사)은 지난 23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매생이 가공식품 시식회를 열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해 1월 강진군의 용역을 받아 매생이 가공식품 개발에 착수해, 이날 5종의 가공식품을 선보였다.

이날 선보인 가공식품은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매생이탕'을 비롯해 영하 15℃로 냉동저장해 해동시킨 뒤 먹는 '냉동 매생이탕', 끓는 물만 부으면 되는 '인스턴트 건조매생이탕', 물과 조미 스프를 넣고 조리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매생이 해장국'과 '즉석 매생이탕' 등이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영명 박사는 "그동안 매생이는 계절식품으로 저장성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개발한 매생이 가공식품은 상온에서 1년 이상 유통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고 말했다.

매생이 가공식품 개발로 대량 소비가 가능해져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강진군과 매생이 가공업체에서는 이날 발표된 시제품을 모델로 대량생산 체제가 갖춰지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었던 매생이가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으로 개발돼 어민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매생이는 철분, 칼륨, 요오드 등 각종 무기염류와 비타민A, C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액을 맑게 해주고 어린이 성장 발육에 효험이 있으며 숙취해소에 더 없이 좋은 웰빙 식품으로 매년 수요가 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진도군, 군수 행사 참석 기준 마련

행정 효율화…발로 뛰는 '투자유치 세일즈맨' 기대

고흥·보성군에 이어 진도군도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면 현안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수·부군수 등의 행사 참석기준을 마련했다.

진도군은 군 주관 대규모 행사와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군 단위 단체 중요행사의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해 군수가 참석하고 그 외 행사는 부군수나 읍·면장이 참석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선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군수의 지역내 행사 참석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군은 효율적인 시간 운영으로 예산 확보 및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수가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국내외 잠재 투자자를 면담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박연수 진도군수는 지난해 7월 취임이후 하루 평균 1.3회 꼴인200여회의 관내·외 주요행사에 참석했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장성군 사무관급 인사 '호평'

행정직⇔농기센터 간 교류 등 실무·현장중심 적재적소 기용

장성군이 지난 23일 사무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가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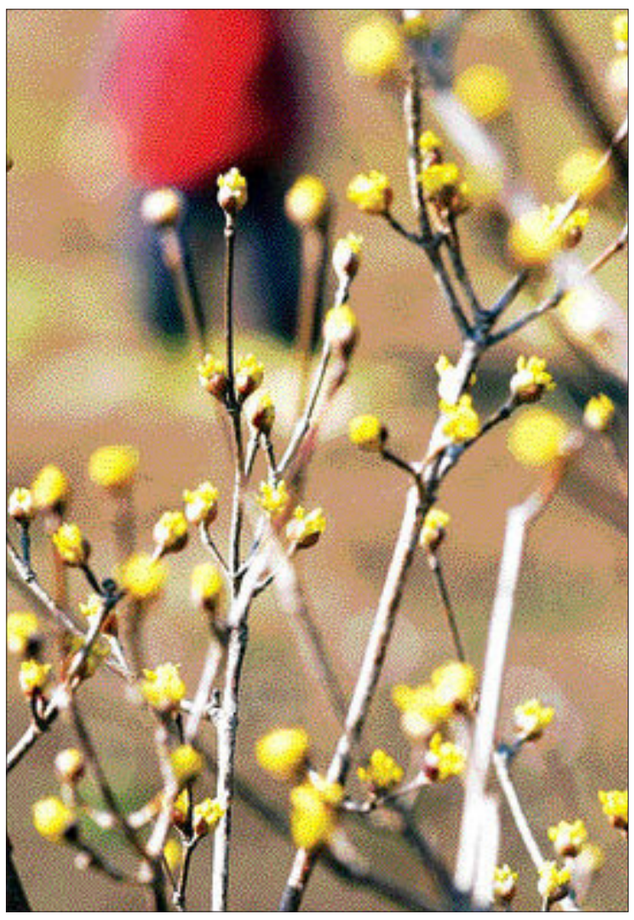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장성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농업부분을 강화하고, 또 의회 및 언론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는 등 행정의 묘미를 충분히 살려냈다는 평가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대원 전 농정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리로 기용됐으며, 김용화 전 장성읍장이 경영기획실장으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조원 지방농촌지도사가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군 행정직 공무원과 농업기술센터 간 교류인사는 극히 드문 일로 양 기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장성군의 농업 경제 활성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유두석 군수가, 평소 업무능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대원씨를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축산물 유통팀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또 경영기획실장에 김용화 전 장성읍장을 임명한 데 대해서도 김 씨의 꼼꼼한 업무 추진력과 의회 및 언론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벌써 봄이 활짝!

나뭇잎이 피기도 전 노란 꽃망울부터 먼저 터트려 봄을 알리는 구례 산동 산수유가 만개했다. 이상고온 영향으로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빨리 자태를 드러낸 산수유는 여름엔 초록색, 가을엔 빨간색 열매로 계절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보양제나 콩팥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약재로 많이 사용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강진청자' 이번엔 일본 나들이

6.7~7.13일까지 나고야 등 6대도시 순회 우수성 홍보

강진청자가 일본 순회 전시회에 나선다. 강진군은 일본인들에게 고려청자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알리기 위한 강진청자 순회 전시회를 오는 6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나고야(名古屋) 등 6대 도시에서 개최한다.

일본 전시회는 도쿄 한국문화원을 시작으로 나고야, 카사마, 마시코, 교토, 오사카를 도는 37일간 일정이다.

전시회에는 관요인 강진고려 청자사업소와 관내 민간요 16곳에서 생산된 국보 재현 작품인 청자사자유개향로, 청자칠보 투각향로,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 500여점이 전시 판매 된다.

개막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 일본 왕족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회가 끝나면 일본 센다이에서 강진청자 초대전이 이어질 계획이며 내년에는 미국 순회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강진청자의 세계 나들이는 지난해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 특별전과 프랑스 리모쥬시 전통 도자기 축제 참가 등에 이어 세번째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발로 뛰는 광산 청소행정팀'

새벽 4시 현장체험 뒤 개선사항 정책 반영키로

"더이상 탁상행정은 없다"

광산구가 지난 1월 중순부터 한달여 동안 청소담당공무원들에게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현장체험이 시작된 시간은 새벽 4시, 대행회사 수거차량에 동승한 담당자는 미화요원과 똑같이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수거작업에 참여했다. 〈사진〉

지역과 요일, 업무별로 세세하게 나누어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몸으로 뛴 결과, 시에 쓰레기 수거차량 반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총 14건의 개선사항을 발견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다세대주택 쓰레기문제를 '재활용품수거함 설치 의무 규정 조례 설치' 추진으로 혁신하자는 개선안은 청소행정의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벽에 현장체험을 하고 복귀해서 또 다시 구청 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방안을 찾아 뿌듯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행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공룡화석지·대흥사…땅끝 해남 오세요"

여행사·투자자 초청 설명회

해남군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

해남군은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에 이어 지난 22~23일 양일간 수도권 유명여행사와 관광레저 투자자 100명을 초청해 '땅끝해남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땅끝해남을 전국에 알리는 관광설명회는 해남의 관광자원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우항리 공룡화석지를 비롯해 땅끝과 우수영, 대흥사 등 해남의 대표관광지를 방문, 문화관광해설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으며 해남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竹鄕' 담양 대나무축제 일정 확정

대나무 박람회·죽검베기 등 4.29일부터 43개 행사 치러져

담양 대표축제인 대나무축제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제 9회 담양대나무축제는 오는 4월 29일부터 1주일간 담양 문화공원, 죽녹원, 시가문화촌, 대나무박물관 일원에서 '맑은 물과 시원한 댓잎소리에 행복한 사람들'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전야제와 개막식, 군민의 날 기념행사, 폐막식 등 의식행사와 함께 '늘 푸른 대숲', '즐거운 놀이문화', '솟구치는 대나무' 등 3개 분야 43가지 행사로 치러진다.

분야별로는 대나무공예품 경진대회, 대나무 박람회, 죽검베기대회 등 '늘푸른 대숲'을 소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즐거운 놀이문화'를 소 주제로 대나무 떳목타기, 대소쿠리 어부체험, 대나무 과학놀이, 대통술 담그기, 대숲 음악회, 락페스티벌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거리 카니발, 줄다리기, 대나무 릴레이 등 참여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돼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되는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